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3, 교부 그리스도론, 파트 2, 기원과 니케아 공의회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교부 그리스도론, 파트 2, 기원과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 특히 교부 그리스도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185년경에 태어나 254년까지 살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독교인
부모의 아들로 교회 내에서 동방 신학의 대표자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박해 동안 순교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였고 순교를 위해 자신을 바쳤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옷을
숨겨서 집에 머물도록 강요했습니다.

뛰어난 사상가였던 그는 18세에 이미 클레멘트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카테쿠멘을 양성했습니다. 수년간 이 일을
한 후, 오리진은 기독교 철학 학교를 운영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강의를 했고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233년에 자신의 교육 및 저술 본부를 카이사레아로 옮겼습니다.
데시우스의 박해 동안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사망할 정도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문학적 산출물은 방대했습니다.

그는 800개의 논문을 썼고, 헥사플라를 편찬했고, 수많은 주석을 썼고,
로마 철학자 켈수스와 Contra Celsum 에서 논쟁했고 , 체계적 신학인
데프린시피우스 를 썼다 . 그는 헬레니즘 철학, 특히 신플라톤주의에
호의적이었고, 다양한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적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후대의 정교회

신학자들이 그에게 큰 빛을 졌다. 특히 아타나시우스와 카파도키아인들, 즉 바실과 두 명의 그레고리우스가 그렇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삼위일체적 공헌은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영원한 생성에 대한 그의 교리였다. 그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기원에 있어서는 아버지 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인간 생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별하고 그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 즉 그의 영원한 생성에 의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만 시작이 영원히 있다고 주장한다.

아들 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존재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 아들은 결코 피조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후기 아리우스 신학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Origin의 이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성이 아버지의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라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 보다 지위와 본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까? 기원은 생성의 영원한 성격과 우리가 이 행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결론을 피하려고 한다. 기원에 따르면, 아버지 와 아들은 본성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동일한 능력을 공유한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은 아들이 그의 신성을 아버지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하며, 그는 나중에 칼빈이 가르친 것, 즉 아들이 오토테오스(autotheos) , 즉 스스로의 신이라는 것을 부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원에 따르면, 아들과 성령은 파생적으로 아버지의 신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후년에 오리진이 아들과 성령의 종속을 강조하면서 아리우스파가 아들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진의 의도는 아니었지만요. 그리스도론의 관점에서, 오리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의 육체와 로고스 사이에 직접 존재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은 영혼의 선재에 대한 오리진의

비성경적 믿음과 관련이 있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경우 순수함과 헌신으로 인해 로고스와 연합할 수 있는 특정 영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로고스의 영혼 쌍을 포괄할 수 있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고통받고 죽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은 인간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의 인성은 로고스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로고스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영광스럽고 신성화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리진의 신학화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양적으로만 우리와 다르게 만들고 완벽한 것과 로고스의 보편적 관계의 예외적인 사례로 만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리진은 영혼을 활동의 중심으로 보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종의 이중적 인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여 후기 네스토리우스 그리스도론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론적 성찰의 이 단계에서 오리진은 명확한 본성-인격 구분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아들의 인격에서 찾지 못했는데, 이는 후기 그리스도론이 한 일입니다. 그 결과, 오리진은 교회가 생각하고 거부해야 할 후기 교회 내의 이단에 대한 문을 열었고, 아마도 이 지평에서 가장 중요한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단에 주목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아리우스주의. 영지주의에 이어 교회의 두 번째 큰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였는데, 이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256년에서 336년경에 퍼뜨린 견해였으며, 그 후 비슷한 입장을 주장한 다른 사람들이 이를 퍼뜨렸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죄받았지만, 그 영향력은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하듯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비슷하게, 만약 교회가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다면, 아리우스파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가지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우스파는 심각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신학적 관점이나 운동도 진공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아리우스파가 생겨난 더 큰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세기의 논의에서 비롯되고,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통일성과 다양성을 만드는 데 교회가 고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군주론과 로고스 그리스도론 패러다임은 많은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군주론 패러다임 내에서 신의 통일성을 보존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으면 모달리즘으로 기울었습니다.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으면 존재론적 종속주의로 기울었지만, 아들과 성령에 대한 낮은 지위에 따라, 기원에 의해 가르쳐진 대로 신성을 아들과 성령에게 부여하면서 신과 아버지의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상가들은 신격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 말했지만, 그것은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3세기 후반에 양태론은 해결되었지만 종속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전 신학자가 가지 않았던 불안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성자를 피조물로 축소했습니다.

그는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었지만 아들을 아버지의 첫째 아들로 여겼지만, 아들의 영원한 선재와 따라서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를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관점이 성경의 예수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리우스 사상의 윤곽, 기본 윤곽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신의 초월성과 그의 절대적 통일성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는 그에게 신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존재를 공유할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통일성이 손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야 할까요? 아리우스는 오직 아버지만이 영원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성령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창조의 나머지와 비슷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아들은 신에게서 태어났고, 아리우스에게는 창조된 것과 동의어인데, 그는 아들을 모든 창조된 존재 중 가장 높은 존재로 보았다. 신의 절대적 초월성을 감안할 때, 창조하기 위해 신은 먼저 중재자, 중재자, 일종의 플라톤적 데미우르고스로 행동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창조해야 했다.

성경에서 이 형상은 지혜, 형상 또는 말씀으로 불렸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한 신이거나 신성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리우스에게 아들은 단순히 피조물일 뿐이며, 참된 신성, 말씀,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실례합니다. 참된 신성, 말씀,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아들이 피조물로서 말씀과 지혜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은혜와 참여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들에게 테오 스(theos) 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단지 유추에 의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리우스는 아들이 신성한 예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완벽한 피조물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에 대한 헌신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따라서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얻고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우리보다 양적으로만 더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아리우스는 아들 이 창조의 중재자일 뿐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릴마이어가 아리우스를 위해 예리하게 관찰했듯이, 아버지-아들 관계는 단순히 신-세계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성경 인용문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구원론이나 계시 신학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아들은 일반적으로 우주론적 중재자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는 우리의 인간 본성을 취하고 죄와 죽음의 황폐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함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신성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리우스에게 성육신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들의 자기 비움이 아니라 창조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입니다.

사실,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를 반신적 인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다신교와 일신교 사이의 교량적 관점입니다. 결국 아리우스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의 업적으로 성취된 구원을 남깁니다. 아리우스주의는 관점이 철저히 이교도적이며 성경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아리우스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마지막 요점은, 특히 후대에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가 로고스 육신 또는 사르크 스 그리스도론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용문에서 로고스와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결합되었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이 없다고 가정하는 그리스도론을 말합니다. 즉, 육신 그리스도론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육체를 취하셨지만 영혼은 취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인간 그리스도론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이란 단어, 영혼은 없다, 인간이란 단어, 몸과 영혼. 후기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가 인간 영혼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쟁은 매우 중요하다. 칼케돈이 나중에 주장하듯이, 아들이 모든 정신적, 심리적 능력을 갖춘 인간 영혼을 자신에게 가져갔다는 상응하는 확인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들마이어가 지적했듯이, 아리우스는 최초로 창조된 로고스가 인간의 몸만 취했을 뿐 인간의 영혼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 본성만 있었고, 따라서 로고스는 육신이 되었지만 인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리우스는 성경과 일치할 수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의 예수는 아무리 높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뢰와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며, 확실히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회의 첫 번째 주요 공의회였으며, 우리 주님의 신성에 관한 결정적인 공의회였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주로 동쪽에서 온 318명의 주교를 니케아에 소집하여 아리우스와 그의 지지자들과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알렉산더와 그의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아리우스파는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작성한 문서인 신앙 선언문을 담대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신성을 명백히 부인했고, 이는 대다수의 주교들을 놀라게 했으며, 전면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 대신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확인하는 신조를 작성하여 아리우스의 가르침과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공의회의 관심사는 한 분의 신, 참된 아버지와 그의 참된 아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여 아들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381에서 온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산물이지만, 원래 신조의 대부분은 후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그리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에게서 독생자로 나신, 즉 아버지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나신 것이지 만들어지지 아니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며,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려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 하지 않았으며, 그는 무(無)에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위격이나 본질 에서 나왔 거나, 변할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톨릭 사도 교회가 정죄합니다. 니케아의 주요 확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아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아들의 완전한 신성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를 고백했지만, 아리우스주의 때문에 지금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교는 거듭해서 성육신한 아들의 신성을 강조했지만, 불행히도 모호함이 없지 않았고, 나중에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니케아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의 목적을 강조하는 적어도 네 가지 중요한 확언이 있습니다.

ousia 에서 나왔다는 구절에서 가르쳐줍니다 . 아타나시우스는 이 언급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파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교들은 아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 외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본질이라고 말한 다음 나중에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의 homo ousios 라고 말하면서 주교들은 아들의 존재가 아버지의 존재와 동일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역사의 이 시점에서 ousia , 자연과 hypostasis, 인격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지막 저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니케아를 모달리즘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호성을 없애는 데는 또 다른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둘째, 아버지와 관련된 아들의 신성은 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독생자로 태어났다는 문구에서도 가르쳐줍니다.

아리우스파는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영원하지만 아들은 창조되고 태어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니케아는 아들이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신성도 아들의 영원한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전자를 확인하지만 후자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니케아는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며 영원한 인격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가 있으며, 이 주제는 나중에 삼위일체적 성찰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셋째, 니케아가 아들이 참 신의 참 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리우스주의와 구별되었고 아들의 신성을 가르쳤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들이 신에게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가 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니케아는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신의 전반적인 계획 안에서의 성육신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육신에 대해 말하며, 성경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인격을 결합합니다. 그것은 종교들이 단순히 학문적 이론화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님이자 구세주를 고백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의 인간성을 자신에게 맡기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의 구원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성경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과 별개로 그의 인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수행한 사람, 즉 그의 인격을 떠나서 그의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 공의회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들의 아버지와 개인적 구별을 모달리즘에 반대하여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사실, 니케아는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 즉 homoousios 가 아니면 완전한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니케아는 언어 사용에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그리스어 ousia 가 당시 ousia 와 hypostasis 의 동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개별적인 실체적 사물을 의미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가 homoousios 라고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모달리즘의 확인이 될 것입니다. 니케아는 이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널드 페어베언이 지적했듯이 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동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인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케아 이후에야 이 언어의 사용이 명확해져서 homoousios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이 모두 한 분의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니케아가 아들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로 남아 있는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히 자연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결국 발전한 기술적 신학적 의미는 4세기 대부분 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Letthum이 인용했듯이, 그러한 의미를 단순히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시대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역사상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세 분으로서 무엇인지에 대한 단 하나의 단어도 보편적인 합의를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 분이 어떻게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거나 소유하지만 그들의 개인적 속성과 관계로

구별되는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hypostasis, 인격이 ousia, 본성에서 분리될 때까지였습니다. 셋째, 니케아는 아리우스파가 부인한 그리스도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정통파의 수호자인 아타나시우스는 적어도 362년 이전에 이 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지만,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미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정통파의 수호자들은 아리우스의 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 때문일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의 지위는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가 부인한 후에야 이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교회는 아들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가 다양한 이단에 대응하고 성경에서 제기한 합법적인 질문과 씨름하는 데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통적인 고백은 더 큰 명확성과 신학적 정확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아와 칼케돈 사이에 더 큰 연합이 나타났고, 이는 우리가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요약에서 다음에 다룰 주제입니다.

니케아에서 칼케돈까지의 그리스도론, 정통의 출현. 니케아 325년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사이의 기간은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적 발전에 중요한 시기였다. 니케아 신조가 교회의 공식 교리였지만, 아리우스파의 영향은 계속되었고, 여러 언어적, 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중요한 자연-인격 구분을 확립한 공통된 신학적 어휘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아버지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본성으로 존재하는 아들과 성령의 인격을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통성이나 아리우스 신학의 어떤 버전을

확언한 황제들 사이의 불행한 엇갈리는 싸움에서 입증되었듯이, 국가가 신학적 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타나시우스와 세 명의 카파도키아 신학자의 역할은 중요했는데, 그들은 삼위일체적 정통성을 명확히 하고 개념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콘스탄티노플의 길을 닦았으며 451년 칼케돈 공의회와 그 그리스도론적 공식화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에 대한 논의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정통 그리스도론에 대한 신학적 보증을 계속 풀어내기 위해 이 중요한 시대를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적 정통성과 그리스도론적 정통성의 기초가 된 니케아와 칼케돈 사이의 세 가지 신학적 발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칼케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결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론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교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론의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논쟁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칼케돈으로 돌아가 정통 신앙의 출현에 대한 중요성을 분석하고, 칼케돈 이후 그리스도론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니케아에서 칼케돈까지, 중요한 신학적 발전.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적 논의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 세 가지 신학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알렉산드리아 시노드 362에서 교회는 마침내 자연-인격 구분에 대한 용어적 명확성을 달성했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주체 또는 인격인 아들이 단순히 아들에 의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상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성육신의 주체 또는 인격은 단순히 아들에 의해 내주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상에 사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셋째, 교회는 아들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자신에게 취했다고 확언하여 단어 인간 대 단어 육신 그리스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연-인격 구분의 발전. 이단이 교회를 더 큰 언어적, 개념적 명확성으로 이끌었을 때, 아타나시우스와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은 종종 자연-인격 구분의 명확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다른 사람들이 1세기 이상 일찍 그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타나시우스에 관해서는, 295년에서 373년경에, 그가 니케아 신학,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는 데 중심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이자 총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주교로서 45년의 임기 중 약 3분의 1을 제국의 반대로 인해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그를 완고하고, 편협하며, 단일 이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328년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임명된 후, 그는 두 가지 주요 신학적 전선에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모달리즘과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 사이의 용어적 혼란으로 인해 모달리즘을 옹호하기 위해 니케아에 호소한 안키라의 마르켈루스에 맞서,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을 주장했지만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와 그 변종에 반대하여 아들과 아버지의 완전한 동등성과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면, 아타나시우스는 구체적인 성경적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신의 완전한 계시이며, 그가 구속의 신성한 일을 하며, 그가 경배받아야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아들 이 단지 피조물 이라면 이 모든 진리는 불가능합니다 . 로버트 레섬이 지적했듯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신성한 인격들 간의 경제적 관계에서 영원한 임박한 관계로 어떻게

옮겨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 섭리, 구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는 아버지, 아들, 영 사이의 영원한 관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아들을 통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피조물 이 아니므로 아들도 피조물이 아닙니다.

대신, 아들은 시작이 없고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내주하는 관점에서 인격의 통일성을 구상했는데, 이를 나중에 페리코레스시스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내주합니다.

그들은 서로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듯이 서로 안에 거합니다.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와 인격의 평등에 대한 주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적어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성부 안에 있고 성부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관례적으로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오셨지만, 체계 신학은 요한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내주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내주한다고 말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내주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은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학적 움직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타나시우스는 교회가 신적 본성의 일체성과 신적 인격 사이의 구별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레템은 또한 아타나시우스의 공헌을 이런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한 존재 안에서 아들과 성령의 신성과 세 분의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은 이해에 있어서 양자적 진전이었고, 삼위일체와 그리스도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점으로 가는 길에서 거대한 이정표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공헌과 더불어 자연-인격 구분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을

더욱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 세 명의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레아의 바실 329-379,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329-390, 니사의 그레고리 335-395.

이들은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신성, 아버지와의 영원한 인격적 구별을 주장함으로써 homoousios를 강력히 확인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함께 그들의 노력은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확립함으로써 교회가 자연-인격 구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이 본성상 하나이며, 단순한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이며, 자신을 단일 의지, 단일 활동, 단일 영광을 소유한 것으로 계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은 모두 신성한 본성 안에 존재하며 동일한 신성한 속성을 동등하게 소유합니다. 세 개의 별개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 분의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서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각 인격이 속하는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류가 모든 개별 인간이 속하는 종이라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인간의 경우, 인류는 특정 수의 인간과 동일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브라운이 지적하듯이, 신성한 본성은 신과 동일하며 세 인격 안에만 존재합니다. 신성한 인격은 서로 다르지만, 신격이나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성상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신입니다. 또는 Lethem이 요약한 대로, 인용하자면, 이것으로부터 동일한 신성한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공유된다는 것이 뒤따릅니다. 세 인격은 모두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동일 본질입니다. 세 분 모두 동일한 존재, homoousios 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또는 존재는 오직 하나이며, 세 분 모두 이를 완전히 공유합니다.

둘째, 이 한 신은 복수성, 또는 더 나은 말로, 위격 또는 인격의 삼위일체입니다. 신은 창조된 세계에 대해 단일한 의지로 행동하기 때문에

, 그들의 개인적 구별은 성경에서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과 그들의 외적 또는 경제적 행위, 즉 *Opera ad extra*에 의해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인격의 내적 또는 임박한 관계, 즉 *Opera ad intra*에 대해 생각할 때, 카파도키아인들은 성경적 어휘를 유추적으로 사용했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각 인격의 속성에 대해 말함으로써 신격의 인격을 구별했습니다.

무생성 , 또는 무생성 , 당신이 원한다면. 아버지, 낳음 , 또는 생성, 아들, 그리고 행렬, 영, 모든 세 인격이 동일한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날드 페어베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용문,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낳아졌고, 영은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즉,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성령과 아버지의 관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 인격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용문 닫기. 따라서 세 인격은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제와 연합에서 동일한 신적 본성으로 존재하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자의 고유한 개인적 속성과 서로에 대한 관계로 서로 구별됩니다. 각 인격은 서로 동등한 신이시므로, 이전에 교회를 괴롭혔던 종속주의의 힌트가 제거됩니다.

그러나 인격 사이에는 또한, 인용문에서, 성부로부터 성자를 거쳐 성령에 의해, 닫은 인용문에서 보존된 순서, 즉 *taxus*가 있습니다. 관계는 역전될 수 없으며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적 구별을 바탕으로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에 더 나은 신학적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이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아리우스 논쟁의 최종 결론이었고, 아리우스주의와 양태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종속주의를 거부하고, 니케아 신조를 다시 써서 성령과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아타나시우스와 세 카파도키아 신학자의 노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존재이지만, 이 한 하나님은 영원히 세 가지 서로 다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인격은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성을 완전히

공유하며 따라서 동일한 본성, homoousios 를 가지고 있으며 , 각 인격은 그 자체로 하나님입니다.

더욱이, 세 명의 서로 다른 인격 사이에 그러한 숫자적 동일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교회는 아타나시우스와 카파도키아인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14장 10-11절에서 단서를 얻어 이 놀라운 신비를 성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즉, 페리코레스시스, 즉 공동 내재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신격 안에서 세 인격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침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페리코레스시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간 또는 같은 영원을 차지하고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은 기원이 없고, agenetos , 끝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각 개인과 모든 개인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는 다른 사람들과 혼동되지 않으면서도 편재합니다. 각자는 광대함을 채웁니다.

이를 넘어, 각각은 서로를 포함합니다. 각각은 다른 사람 안에 거주합니다 . 각각은 다른 사람을 관통합니다.

각 조건은 다른 조건의 존재 방식을 조건지웁니다. 아무도,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다른 조건 없이는 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특히 삼위일체 간 인격 관계의 통일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어렵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에는 그것과 유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관계에 호소하지만, 여기서도 그것은 전달되지 않는다 . 왜냐하면 맥클라우드가 지적했듯이, 신의 존재에는 신성한 인격들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존에 대한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 섭리 또는 구원에서든 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행동할 때,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한 신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한 신은 삼위일체이다. 왜냐하면 세 인격이 모두 단일 본성으로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포함하지 않는 한 사람의 행동은 없으며, 하나님의 본성과의 관계가 인격과의 관계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의 행위가 세 분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각 인격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맥클라우드는 "삼일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은 아들 또는 로고스로, 영은 영으로 창조하십니다.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위, 특히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어 아버지를 구속합니다. 아들은 육신을 입고, 그의 삶과 죽음에서 그의 백성을 대표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함으로써 구속합니다. 영은 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삼위일체 신격 전체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도록 구속합니다.

이 논의가 그리스도론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유로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론적 발전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칼케돈 이후 삼위일체적 공식화는 교회 역사상 이전보다 더 확고한 기반 위에 놓였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본성-인격 구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자세한 그리스도론적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아리우스주의는 패배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연관시킬지,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 공식적인 토론 노선이 확립되어 교회 역사의 후기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기본 매개변수 내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후대에는 단지 이전 논의에 주기적인 각주를 추가하고 정통성에 대한 현재의 부정으로부터 초기 견해를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성육신의 주제나 사람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인간 대 말씀-육신의 틀에서 성육신을 이해한 다음, 니케아에서 칼케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교부 그리스도론, 2부, 기원과 니케아 공의회입니다.